

EBS 연계 대비

어서 하루씩 오르다

독서 N제

-
문제



1

EBS 소재의 평가원식 재설계로 연계 체감도 극대화

EBS 수록·수완의 핵심 소재와 논리를 단순한 소재 변형이 아닌, 평가원 고유의 출제 코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익숙한 제재인데 낯설고 어려운' 평가원 기출의 경험을 그대로 구현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암기가 아닌 평가원식 추론 훈련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영역별 핵심 제재 집중 공략, 총 61지문 세트 구성

실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역별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제재만을 엄선하여 총 61지문 세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빈출 주제와 필수 논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수능 당일 어떤 제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실전 적응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고난도 주제 통합 세트 집중 공략

EBS 수록·수완에서 느슨하게 다뤄졌으나 수능에서 킬러·준킬러로 돌변할 수 있는 핵심 제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동일 화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대조·종합하는 훈련을 통해 숨겨진 평가원식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어떤 고난도 문항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실적 독해부터 적용 및 창의까지 단계적 사고 훈련

단순 정보 확인을 넘어 지문의 핵심 구조를 분석하고 문맥상 생략된 내용을 추론·비판하는 단계적 문항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평가원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며, 실제 독해력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5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문 구성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기술 등 각 영역에서 EBS 연계 시 놓치기 쉬운 심층적 개념과 잠재적 출제 포인트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영역별 특성에 맞는 독해 전략을 적용하여, 실전에서 EBS 연계 지문을 마주할 때 당황하지 않고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감각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문제

터서 하루씩 오르다

연구진은 이곳 배양된 암세포를 주

4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대조군 | 실험군 1 | 실험군 2 |
|--------------------|------|---------|---------|
| 물질 처리 여부 | 없음 | 물질 A 처리 | 물질 B 처리 |
| 유전자 Y의 메틸화 수준 | 높음 | 낮음 | 높음 |
| 유전자 Y의 리스톤 아세틸화 수준 | 낮음 | 낮음 | 높음 |
| 알레르겐 X의 증식률 | 100% | 30% | 40% |

물질 A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유전자 Y

물질 B는 DNA 메틸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유전자 Y의 이
세밀한 구조를 늦추어준다.

실험군 I의 암세포 증식을 감소는 물질 A로 인해 유전자 Y 부위의 염색질 응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겠군.

50. 뿔글을 바깥으로 할 때,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서 DNA 메틸화가 감소한다.
- ② 원암유전자 부위의 히스톤 꼬리에서 아세틸화가 되어 전사가 억제된다.
- ③ DNA 메틸화 효소의 과활성으로 인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DNA 메틸화가 증가한다.
- ④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의 이상 활성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DNA 메틸화가 증가한다.
- ⑤ 원암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이 저메틸화되어 단백질이 과다 생성된다.

③ 실험군 2의 히스톤 아세틸화 수준 상승은 리신 잔기와 양전하가 강화되어 DNA와의 인력이 강해졌음을 의미하겠군.

④ 물질 A와 B의 혼합 처리는 유전자 Y의 메틸화는 높이고 아세틸화는 낮춰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저해하겠군.

해설

- 2) 2분간을 보면 퇴계 학파는 중국 무이산에 직접 기를 수 없는 리학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이구국도'를 수립하고 반박하고 화하를 하는 방안을 지향하였다.
- 3) 3분간을 보면 결국 학파는 실제 학문 경관에 자신들의 학문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학문을 담고 있는 학자들 및 유물론 등 학문 수양의 장을 현실 공간에 투영적으로 구축하여 형성되었다.
- 4) 4분간을 보면 17세기 후반의 노론 세력은 송시열의 화양구국을 경영하면서 주희에서 이,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통적 정신인 통일이 자신들에게 계승되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3

『보가』 실명은 보의는 노론의 김주승이 강연도 화친 제국에 곡운국곡을 설정하고 '곡운국도도'를 제국이라 하여 공유한 사자적 사리를 제시한다. 이 시에는 13문에서 다른 실문 학파의 국곡과 학풍 향촌 공간 정령 및 나라 정령 표리라는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동시에 4문 단에서 다른 17세기 후반 노론 세력이 학풍의 정통성인 도통을 대변하고 과시하고 학파적 접촉을 다룬 정치적 편편을 고려 할 때에 한 정령적 도통적의 국도도 제국과 제국적 편편을 공히 한 맥락상 활용하여 각 선지에서 제시된 노론 세력의 형와 지향의 어떤 학파적 지향 및 실천 방식에 대응하는 의 파악하는 것이 붙이는 책임이다.

4

- ⑤ **출제 예상**
- ① **출제 가능성**은 문맥상 어떤 태도, 행동, 방법 따위를 선택하여 할 것이기 지음을 뜻하는 말인 것이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의 ‘취하고 싶다’에서 ‘취하다’는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선행어에 출제될 가능성을 가리키므로 지문의 어휘 쓰기와 유사하다.
- ② **출제 예상**
- ① ‘이름을 취하고 싶어서’의 ‘취하고 싶다’는 자기 지칭으로 만들어 자기 지기 취하기를 뜻하므로 지문의 ㉠과 유사하다.
- ② ‘안전을 취하고 싶어서’의 ‘취하고 싶다’는 휴식, 열망, 성취 따위를 품고 얻어 지기를 뜻하므로 지문의 ㉡와 유사하다.
- ③ ‘모르므로 취하고 싶어서’의 ‘취하고 싶다’는 어떤 사물에 대한 호감이나 애호를 나타내므로 지문의 ㉢과 ㉣과 유사하다.
- ④ ‘의견을 취하고 싶어서’의 ‘취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취할 만한 것을 골라 받아들임을 뜻하므로 지문의 ㉤과 ㉥과 유사하다.

5

- ⑤ 퇴폐 학파는 현실 공간을 직접 개척하거나 점유하는 일을 지양하였다. 2분단을 보면 퇴폐 학파는 '무어구독도 못 모시고 감상하는 예술적 매체'를 대가로 삼아 도회적 삶의 태도를 내면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현실 공간의 직접 개척이나 점유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율곡 학파는 3분단을 시·술화시켜 자연 경관에 자신들의 구국을 설정하고 영양하였다. 따라서 두 학파 모두 조선의 구국적인 산수를 직접 가꾸었다.

- [illegible]

- ① 김수환이 경전도 화천 계곡에 국문국곡을 설계하고 정자를 지어 생활하며 은거를 꿈꿨다. 3분만에 세우고 싶은 정자를 허락하고 자갈밭 자갈에 정자를 세우고 한가로운 국곡을 설계하고 정자를 세워서 경경하여 공작한 김수환이 했던 실천적 태도인 국곡 경영 방식의 연장선에서 보여 준다.
- ② 조계절이 심장산수와 기묘으로 계곡의 실제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국문국곡'을 그렸지만, 3분만에 세우고 싶은 정자를 허락하는 조계사의 국곡의 국곡을 살리학적 지향에 정자를 짓기 가장 가까운 김수환이 실제 정자유지를 시각적으로 표명하러 한 실천적 성취를 의미할 것이다.
- ③ '국문국곡'에 '유구국곡'과 '고산국곡'을 존경하고 흡수하는 정적 경치를 배제한 것은, 4분만에 세우고 세 배에서 정자를 짓기를 거부하는 조계사, 이러한 정적 정경론이 동서로 정당한 승화지향이다.

- [illegible]

CONTENTS

인문·예술

[1~4]	구곡도의 제작과 경영	2027 EBS 수특 104p	p. 08
[5~8]	귀납 추론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	2027 EBS 수완 160p	p. 10
[9~12]	기원본질주의	2027 EBS 수특 096p	p. 12
[13~16]	롤랑바르트의 신화론	2027 EBS 수특 083p	p. 14
[17~20]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2027 EBS 수특 214p	p. 16
[21~24]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2027 EBS 수특 100p	p. 18
[25~28]	미니멀리즘 음악과 들뢰즈의 반복	2027 EBS 수특 058p	p. 20
[29~32]	디지털 예술 볼츠 매체 미학	2027 EBS 수완 239p	p. 22
[33~36]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	2027 EBS 수특 070p	p. 24
[37~40]	예술 표현 이론의 변천	2027 EBS 수특 066p	p. 26
[41~44]	정도전의 불교 비판과 기화의 호불론	2027 EBS 수완 008p	p. 28
[45~48]	종차별주의와 종중첩논증	2027 EBS 수특 088p	p. 30
[49~52]	프레게의 지시 이론과 러셀의 기술 이론	2027 EBS 수특 075p	p. 32
[53~56]	피아제의 전개념적 사고	2027 EBS 수완 135p	p. 34
[57~60]	후기 하이데거의 기술과 예술	2027 EBS 수특 054p	p. 36
[61~64]	흙의 기적 논증	2027 EBS 수특 093p	p. 38

사회·문화

[1~4]	IS-MP 모형	2027 EBS 수특 122p	p. 42
[5~8]	리더십 모형 및 동기부여 이론	2027 EBS 수특 109p	p. 44
[9~12]	법률의 착오와 형법 제16조	2027 EBS 수완 190p	p. 46
[13~16]	법률혼의 성립과 해소	2027 EBS 수특 132p	p. 48
[17~20]	법인의 권리능력	2027 EBS 수완 019p	p. 50
[21~24]	법적 의제의 유용성	2027 EBS 수특 162p	p. 52
[25~28]	복잡계 경제학	2027 EBS 수특 048p	p. 54
[29~32]	소비 함수	2027 EBS 수특 021p	p. 56
[33~36]	주파수 할당과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2027 EBS 수특 286p	p. 58
[37~4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7 EBS 수특 127p	p. 60
[41~44]	터너의 교류 욕구와 정체성 검증	2027 EBS 수특 149p	p. 62
[45~48]	토지거래허가와 부동산 공시	2027 EBS 수특 136p	p. 64
[49~52]	특별 공공 행정 조직	2027 EBS 수특 140p	p. 66
[53~56]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청빈소유권	2027 EBS 수특 153p	p. 68
[57~60]	행정행위의 부관	2027 EBS 수특 118p	p. 70
[61~64]	회피된 배출 개념과 신뢰성 제고 과제	2027 EBS 수완 162p	p. 72

과학·기술

[1~4]	CPU와 GPU의 구조와 원리	2027 EBS 수특 198p	p. 76
[5~8]	가상 메모리 페이징	2027 EBS 수특 041p	p. 78
[9~12]	맛 인지의 맥락 의존성	2027 EBS 수완 192p	p. 80
[13~16]	분산 합의와 CAP 정리	2027 EBS 수특 218p	p. 82
[17~20]	스테가노그래피와 암호화	2027 EBS 수완 217p	p. 84
[21~24]	식물 분열 조직	2027 EBS 수특 190p	p. 86
[25~28]	에너지밴드와 양자점 디스플레이	2027 EBS 수특 172p	p. 88
[29~32]	역노화 기술과 세포 리프로그래밍	2027 EBS 수특 308p	p. 90
[33~36]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	2027 EBS 수특 211p	p. 92
[37~40]	전류밀도와 표피효과	2027 EBS 수특 017p	p. 94
[41~44]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2027 EBS 수완 141p	p. 96
[45~48]	초전도 현상과 초유체의 특성	2027 EBS 수특 290p	p. 98
[49~52]	후성 유전의 개념과 암 발생 메커니즘	2027 EBS 수특 168p	p. 100
[53~56]	이동식 크레인의 지렛대 원리	2027 EBS 수특 186p	p. 102
[57~60]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과 보어 효과	2027 EBS 수완 164p	p. 104

주제통합

[1~6]	도가의 무위와 독화론	2027 EBS 수특 223p	p. 108
[7~12]	레싱의 매체 미학과 페히의 상호매체성	2027 EBS 수특 248p	p. 110
[13~18]	바이오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2027 EBS 수완 243p	p. 114
[19~24]	부르디외와 기든스의 자본과 세계화	2027 EBS 수특 228p	p. 116
[25~30]	사변적 실재론과 의미의 장	2027 EBS 수특 238p	p. 118
[31~36]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2027 EBS 수특 262p	p. 120
[37~42]	인과의 규칙성설과 과정 이론	2027 EBS 수특 262p	p. 122
[43~48]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	2027 EBS 수특 062p	p. 124
[49~54]	조세 법률주의와 상속증여세	2027 EBS 수특 243p	p. 126
[55~60]	조작적 조건화와 보편 문법	2027 EBS 수완 212p	p. 128
[61~66]	지각경험의 정당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2027 EBS 수완 187p	p. 130
[67~72]	차주전자 효과와 젖음성	2027 EBS 수특 233p	p. 132
[73~78]	페니실린의 발견과 세포벽 억제	2027 EBS 수특 273p	p. 134
[79~84]	허구 이해와 명제 이론	2027 EBS 수특 013p	p. 136



—인문·예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는 무이산 계곡에 무이정사를 짓고 무이구곡을 설정했다. 주희는 무이구곡의 아홉 굽이마다 펼쳐진 경관과 자신의 도학적 지향을 담아 칠언절구 10수의 한시 연작인 『무이도가』를 지었다. 성리학에서 자연은 인간이 도를 깨닫고 수양하는 매개체이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공간이다. 따라서 구곡은 심미적 감상의 대상을 넘어, 자연을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구분하고 인간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조화시키려 한 도학 실천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도학적 지향 속에서 사대부들은 구곡의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명명함으로써 자연을 성리학적 질서 속에 편입하고자 했다.

조선에 성리학이 보편적인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이구곡은 사대부들에게 주희에 대한 흠모와 학문적 지향을 상징하는 이상향으로 수용되었다. 이황을 필두로 한 퇴계 학파는 중국 무이산에 갈 수 없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희가 경영한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를 수집하고 이를 반복하여 모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무이구곡도』를 보며 주희의 도학적 경지를 상상 속에서 가늠하고,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빌려 시를 짓는 차운(次韻) 활동을 통해 그의 행적과 정신을 따르고자 했다. 퇴계 학파에게 구곡과 구곡도는 현실 공간의 직접 개척이나 점유 대상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예술적 매체의 모사 및 감상을 통해 도학적 삶의 태도를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체득하려는 간접적 흠모의 방편에 가까웠다.

이와 달리 이이를 필두로 한 율곡 학파는 ㉢무이구곡을 간접적으로 동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연 경관에 자신들만의 구곡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이가 황해도 해주에 고산구곡을 설정하고 석담정사를 세워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율곡 학파에게 구곡 경영이란 조선의 구체적인 산수를 성리학적 지향에 맞게 직접 가공하고 정립하는 일이었다. 이이가 고산구곡의 경관을 읊은 연시조 『고산구곡가』를 지은 이후, 후학들은 이 시조에 담긴 경관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고산구곡도』를 제작하여 공유했다. 율곡 학파의 구곡도 제작은 향촌의 공간에 성리학적 질서가 실현됨을 선언하고, 자신들이 그 공간의 실제 점유자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는 정치·사회적 행위였다.

17세기 후반 즈음 구곡 경영과 구곡도 제작은 성리학적 수양론을 넘어 학파적 정통성을 과시하는 정치적 도구로 확장되었다. 특히 서인에서 분화한 노론 세력은 송시열의 화양구곡이나 김수증의 곡운구곡을 중심으로 구곡 문화를 주도했다. 이들은 주희, 이이를 거쳐 송시열과 그 학파로 이어지는 학문적 정통성인 도통(道統)이 자신들에게 계승되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했다. 이 시기에 노론의 학풍을 계승하며 제작된 『화양구곡도』나 『곡운구곡도』는 자연에 대한 단순한 묘사물이나 세속에서 벗어나 은거하려는 은일적 취향을 담은 그림이 아니었다. 이는 도통의 계보를 가시화하고, 학파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노론의 학문적 및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적인 기획의 산물이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주희는 무이구곡을 설정하고 『무이도가』를 지어 도학적 수양의 이념을 공간화하였다.
- ㉡ 퇴계 학파는 현지 답사가 불가능한 지리적 제약을 수집한 그림의 모사 행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 ㉢ 율곡 학파의 고산구곡 경영은 학문 수양의 장을 현실 공간에 주체적으로 구축한 실천이었다.
- ㉣ 노론 세력은 화양구곡을 경영하여 주희와 이이의 계보를 잇는 도통의 정통성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 ㉤ 퇴계 학파와 율곡 학파는 모두 조선의 구체적인 산수를 직접 가공하여 성리학적 질서를 가시화하려 하였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주희의 도학적 성찰을 간접 체득하려는 태도를, ㉡은 현실 공간의 실제적 점유를 표방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 ㉢ ㉠은 이념적 상징성의 시각적 표방을, ㉡은 자연 경관의 조형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재현을 지향한다.
- ㉣ ㉠은 학파적 결속력의 강화를, ㉡은 도학 실천에 따른 개인적 삶의 탈정치화를 추구한다.
- ㉤ ㉠은 외래 사상의 수용을, ㉡은 독자적 화풍 창조를 통한 외래 성리학과의 결별을 드러낸다.
- ㉥ ㉠은 예술적 기법의 창조적 변용을, ㉡은 원본의 형태적 원형을 그대로 복제하려는 재현을 드러낸다.

E어서 하루씩 오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노론의 김수증은 일찍이 강원도 화천의 계곡에 ‘곡운구곡’을 설정하고 정사를 지어 은거하였다. 이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동생 김수항과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자, 그는 정계와 거리를 두고 은거를 완전히 굳혔다. 김수증은 1682년 화가 조세걸에게 곡운구곡의 실제 경치를 실경산수화 기법으로 그리게 하여 『곡운구곡도』를 완성하였다. 이 그림은 단순한 상상의 구곡도가 아니라 계곡의 실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주희의 무이구곡과 이이의 고산구곡에 대한 존송과 경모의 뜻을 담은 장치들을 배치하였다. 노론 세력은 이 그림을 감상하고 관련 시문을 나누는 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송시열과 김수증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한 정통 세력임을 공고히 하였다.

- ① 김수증이 곡운구곡을 설정하고 정사를 지어 은거한 것은 율곡 학파가 실질적 향촌 산수를 성리학적 지향에 맞춰 직접 경영한 실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② 조세걸이 『곡운구곡도』에 계곡의 실제 경치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은 실존하는 구체적 향촌 공간을 성리학적 질서의 장소로 표방하려는 의도와 상통한다.
- ③ 『곡운구곡도』에 무이구곡과 고산구곡에 대한 경모의 뜻을 담은 장치들을 배치한 것은 주희와 이이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기획이다.
- ④ 송시열 사사 후 노론 세력이 『곡운구곡도』를 감상하고 시문을 나누며 교류한 것은 학파적 동질성을 공고히 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및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 한 행위이다.
- ⑤ 『곡운구곡도』에 경모의 뜻을 담은 장치들을 배치하고 이를 감상하며 교류한 행위는, 형태적 복제를 통해 도학적 경지를 내면적으로 체득하려 한 퇴계 학파의 간접적 흡모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는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 ② 정부는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 ③ 그는 휴가를 얻어 교외에서 조용히 안정을 취하였다.
- ④ 이 소설은 구전되는 설화에서 주인공의 모티프를 취하였다.
- ⑤ 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제안 중 합리적인 의견을 취하였다.



—사회·문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시경제학에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IS-LM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 IS 곡선은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줄어들므로 IS 곡선은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하향의 형태를 띤다. 한편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대의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기보다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경제학자 로머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LM 곡선 대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반응 함수를 나타내는 MP 곡선을 제안하였다.

MP 곡선은 경제학자 테일러가 제안한 이자율 결정 규칙인 테일러 준칙에 기초한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설정해야 할 적정 기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수준인 균형 실질이자율에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각각 일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다. 인플레이션 갭이란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고, GDP 갭이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다. 인플레이션 갭이 양의 값이면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자율을 높여야 하고, GDP 갭이 양의 값이면 경기가 과열된 것이므로 역시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므로, MP 곡선은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의 형태를 띤다. 다만 중앙은행이 정책 기초 자체를 바꾸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MP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IS-MP 모형에서 균형은 IS 곡선과 MP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MP 곡선을 따라 이자율도 함께 상승한다. IS-LM 모형에서도 IS 곡선이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LM 곡선은 국민소득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와 달리 IS-MP 모형에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자율을 추가로 올리므로, 이자율 상승 폭이 더 크고 그만큼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도 강해진다. 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MP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IS-MP 모형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은 테일러 원칙이다. 테일러 원칙이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인플레이션 상승분보다 더 크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므로, 명목이자율의 인상 폭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폭보다 크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 반대로 테일러 원칙이 충족되지 않아 명목이자율의 인상 폭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폭보다 작으면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하락한다. 이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S 곡선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 ② LM 곡선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MP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 ④ IS-MP 모형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 효과는 IS-LM 모형에서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 ⑤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클 때,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2.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항상 상승한다.
- ② 국민소득 증가 시의 이자율 인하는 우상향하는 MP 곡선으로 나타난다.
- ③ 테일러 원칙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안정된다.
- ④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이 모두 0일 때, 적정 기준금리는 균형 실질이자율과 현재 인플레이션율의 합이다.
- ⑤ 이자율을 가로축, 국민소득을 세로축으로 하는 평면에 나타난 IS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E어서 하루씩 오르다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경제에서 현재 균형 실질이자율은 2%,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각각 0.5이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기 전 이 경제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 경제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6%로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두 가지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갭은 명목이자율을 10%로 설정하는 것이고, 정책 을은 명목이자율을 7%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잠재 GDP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외부 충격이 발생하기 전의 적정 기준금리는 4%이다.
- ② 외부 충격이 발생한 후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는 10%이다.
- ③ 정책 갭을 시행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 ④ 정책 을을 시행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⑤ 정책 을은 테일러 원칙을 충족하므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통제(統制)하여
- ② ㉡ : 투영(投影)하여
- ③ ㉢ : 진정(鎮靜)시키지도
- ④ ㉤ : 위반(違反)되는
- ⑤ ㉥ : 결정(決定)하는



—과학·기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의 핵심 연산 장치인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설계 지향점에 따라 내부 구조가 서로 다르다. CPU는 복잡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는 지연시간 최소화 지향형 장치이다. 이를 위해 CPU는 실행 흐름을 제어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연산 지연을 줄이는 분기 예측 장치 등 정교한 제어장치를 갖춘다. 또한 메모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가져오기 위해 칩 면적의 상당 부분을 대용량 캐시 메모리에 할당한다. 반면 GPU는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한꺼번에 처리하여 처리량 극대화를 지향하는 장치이다. GPU는 복잡한 제어장치나 캐시 메모리의 면적 비율을 줄이는 대신, 단순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논리연산장치(ALU)의 개수를 극대화한다. 이 때문에 GPU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코어를 탑재하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다.

이러한 GPU의 물리적 구조는 스레드를 통해 제어된다. 스레드는 GPU에서 실행되는 연산의 최소 단위이며, 하드웨어 구조에서 워프라는 단위로 그룹화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워프는 32개의 스레드로 구성된다. GPU의 제어장치는 개별 스레드마다 제어 회로를 따로 두지 않고, 단일 명령어 복수 스레드(SIMT) 방식을 통해 하나의 명령어를 워프 내의 모든 스레드에 일괄 전달한다. 이에 따라 워프 내의 스레드들은 매 클록마다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여 연산 시간을 줄인다. 이러한 구조는 개별 데이터의 값은 다르지만 수행하는 연산 과정이 동일한 병렬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그러나 워프 내의 스레드들이 조건문을 만나 서로 다른 경로의 연산을 수행해야 할 때는 연산 속도가 떨어지는 병목이 발생한다. SIMT 구조에서는 제어장치가 워프에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보낼 수 있으므로, 스레드들의 실행 경로가 갈라지면 동시에 연산할 수 없다. 이를 분기 발산이라 한다. 분기 발산이 일어나면 GPU는 먼저 한 경로의 스레드들만 활성화하여 연산하고, 다른 경로의 스레드들은 연산을 멈춘 채 대기하도록 제어한다. 해당 경로의 연산이 끝나면 대기하던 다른 경로의 스레드들을 활성화하여 연산하고, 먼저 연산을 마친 스레드들을 대기시킨다. 즉 병렬로 처리되어야 할 연산들이 순차적으로 나뉘어 실행되는 직렬화가 일어나며, 워프 전체의 연산 시간은 각 경로가 소요한 시간의 합만큼 늘어난다.

G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전역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접근 속도이다. 전역 메모리는 용량이 크지만 접근 속도가 느려 데이터 전송 시간이 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PU는 메모리 병합을 이용한다. 메모리 병합은 동일한 워프의 스레드들이 전역 메모리에 접근할 때, 접근하려는 주소들이 연속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메모리 제어가 이를 단일 트랜잭션으로 결합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스레드들이 불연속적인 주소로 메모리에 접근하면 병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메모리 제어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별 트랜잭션을 실행하므로,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낭비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GPU의 전체 연산 속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GPU는 하드웨어 구조상 연산 장치의 비율을 늘려 대량의 연산을 수행하지만, 연산의 성격과 메모리 배치에 따라 실제 성능이 달라진다. 조건문의 분기 경로가 일치하여 분기 발산이 방지되고, 데이터 주소가 연속적으로 정렬되어 메모리 병합이 일어날 때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최대로 발휘된다. 이러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메모리 접근 횟수가 줄고 연산 직렬화가 방지되어야 비로소 많은 코어의 병렬 연산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PU는 복잡하고 다양한 연산 명령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제어장치와 대용량 캐시 메모리를 갖추고 있다.
- ② GPU는 동일한 연산 명령어를 대량의 데이터에 한꺼번에 대입하여 동시 연산하는 처리량 지향형 반도체 소자이다.
- ③ SIMT 구조에 기반한 GPU 설계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룹화된 32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단일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CPU 코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분기 예측 장치 등은 연산 지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요소이다.
- ⑤ GPU는 연산 장치의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CPU에 비해 복잡한 구조의 제어장치와 캐시 메모리의 면적 비율을 늘렸다.

E에서 하루씩 오르다

2. 밑글에 나타난 ‘분기 발산’과 ‘메모리 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분기 발산 시 한 경로의 스레드가 연산되는 동안, 다른 경로의 스레드는 비활성 상태로 머무른다.
- ② 분기 발산은 스레드들이 서로 다른 캐시 메모리에 접근할 때 유발되는 병목 현상이다.
- ③ 메모리 병합은 스레드들이 불연속적인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활성화되는 기법이다.
- ④ 메모리 병합이 일어나면 개별 트랜잭션 횟수가 늘어나 데이터 전송 효율이 높아진다.
- ⑤ 워프 내 스레드들은 분기 발산 시 각기 다른 명령어를 전달받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3.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건 충족 비율이 50%에 가까워질수록, 분기 발산에 따른 연산 시간 단축 효과가 커지겠군.
- ② 불연속적인 주소에 접근하는 스레드가 늘어날수록, 트랜잭션 횟수가 줄어들어 지연시간이 감소하겠군.
- ③ 스레드들의 조건 경로가 일치하고 주소가 연속적일수록, 개별 코어가 단순한 연산만 수행하더라도 GPU 전체 처리량은 극대화 되겠군.
- ④ 스레드들이 접근하는 주소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메모리 병합률이 높아져, 전역 메모리 대역폭의 낭비가 방지되겠군.
- ⑤ GPU의 스레드 개수만 늘리면, 분기 발산이나 메모리 접근 패턴에 관계없이 연산 속도가 항상 선형적으로 증가하겠군.

4. <보기>는 GPU 상에서 가상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GPU에서 실행되는 한 워프는 8개의 스레드(T0 ~ T7)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역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조건에 따라 연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각 스레드가 접근하려는 메모리 주소(A)와 조건문의 조건 판단 결과(B)는 다음과 같다.

	T0	T1	T2	T3	T4	T5	T6	T7
A	100	101	102	103	200	201	202	203
B	참	참	참	참	거짓	거짓	거짓	거짓

[조건]

1. 조건식이 ‘참’인 스레드는 연산 경로 P_{true} 를 실행하고, ‘거짓’인 스레드는 연산 경로 P_{false} 를 실행한다.
2. 메모리 제어기는 주소가 연속된 최대 4개의 메모리 접근 요청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병합할 수 있다.
3. P_{true} 와 P_{false} 는 각각 10클록의 연산 시간이 필요하다.
(단, 메모리 접근 요청은 워프 내 모든 스레드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연산 시간 외의 메모리 접근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한다.)

- ① T0~T3과 T4~T7의 실행 경로가 서로 다르므로, 이 워프에서는 분기 발산이 발생하겠군.
- ② P_{true} 경로가 실행되는 동안 거짓 조건인 T4~T7 스레드는 연산을 하지 않고 대기하겠군.
- ③ 스레드들이 동시에 요청한 메모리 접근은 병합을 거쳐 총 2회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되겠군.
- ④ 이 워프의 스레드들이 연산 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10클록이겠군.
- ⑤ T4~T7의 결과가 참으로 바뀌면, 분기 발산이 사라져 워프의 연산 시간은 10클록으로 줄어들겠군.



— 주제통합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위진 시대의 학문적 전환기는 도가 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그 중심에 선 왕필은 노자의 『도덕경』을 주해하며 독창적인 형이상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는 현상 세계의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질서가 혼란에 빠진 원인을 우주의 근원적 질서에 대한 오해에서 찾았다. 왕필에 따르면 당시의 학풍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존재와 현상에만 집착하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 원리를 망각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현상적 다양성을 통합하는 단일한 형이상학적 토대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왕필 철학의 핵심은 만물의 본질이자 우주의 궁극적 근원으로서 무를 설정한 데 있다. 현상 세계의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형상과 이름을 지닌 유이다. 그러나 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형상과 이름이 없는 상태인 무에 의존해야만 성립한다. 왕필은 무를 유의 결핍이나 허무가 아니라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궁극적 본체로 규정하였다. 무는 어떤 구체적인 속성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유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다. 만약 근원이 특정한 형상을 가졌다면 그와 다른 형상을 지닌 존재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는 무를 근원으로 삼아 자신의 존재적 본성을 실현한다.

이러한 본체론은 정치철학인 무위이치로 이어진다. 왕필은 군주가 근원적 실재인 무의 원리를 체득하여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가 아니라 인위적인 규범이나 억압적 제도를 가하지 않는 지배 원리이다. 군주가 인위적 조작을 멈추고 무위로써 임할 때 백성은 인위의 규정성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왕필은 이를 자화라 불렀다. 군주의 인위적 규범이 강요될수록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지만 군주가 무위를 실천하면 백성은 강제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나)

왕필 이후 도가 사상의 재해석은 광상에 이르러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광상은 『장자』를 주해하며 왕필이 세운 무 중심의 본체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였다. 광상에 따르면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무는 존재하는 유를 낳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낳을 수 없다는 무불능생유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로써 광상은 현상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며 만물을 주재하는 초월적 존재나 근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근원적 주재자를 부정한 광상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다는 자생과 외부적 요인 없이 홀로 변화한다는 독화를 주장하였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어떤 외부적 원인이나 창조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재적 힘에 의해 홀연히 생겨난다. 또한 각 존재는 다른 존재에 의해 강제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오직 자기 원인에 의해 변화해 나가는 자율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생과 독화의 과정에서 모든 만물은 저마다 타고난 고유한 본성과 분수인 성분을

을 지닌다. 광상에게 있어 참된 자유와 조화는 만물이 자신의 성분을 깊이 인식하고 그 분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분을 통해 달성된다.

나아가 광상은 만물이 홀로 독화하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조건이자 배경이 되어 주는 상대의 관계를 ㉔ 맺고 있다. 만물은 상호 의존적인 그물망을 형성하지만 이는 어떤 초월적 주재자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화하는 과정에서 신비롭게 어우러지는 현합, 즉 신비로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상은 무위를 인위적 제도인 명교의 전면 부정으로 보지 않았다. 명교 또한 역사적 독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므로 명교적 질서 안에서 각자가 성분을 발현하는 행위는 자연과 합일된다. 따라서 군신이나 부자 관계와 같은 사회적 위계조차 인위적 강제가 아니라 각 존재가 자신의 성분에 따라 타자와 관계 맺는 독화의 한 형태로서 자연스러운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인위적 지배 규범이었던 명교를 자연의 원리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즉 광상에게 무위는 타인의 성분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성분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의 방식이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사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사상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② (나)는 상충되는 두 학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절충적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핵심 철학자의 주해 작업을 토대로 기존 이론을 재해석하고 있다.
- ④ (가)는 현상에 기반한 연역적 추론을, (나)는 본체에 기반한 귀납적 추론을 수행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된 주장의 대조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왕필과 광상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왕필은 무가 특정한 형상을 지녔기에 만물의 다양성을 낳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왕필은 백성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군주가 인위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광상은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궁극적 본체로서의 초월적 근원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④ 광상은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본성상 다른 존재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본다.
- ⑤ 광상은 사회 제도와 도덕 규범이 역사적 독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E에서 하루씩 오르다

3. (가)에 나타난 왕필의 관점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물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실재인 무에 의존해야 한다.
- ② 군주가 인위적 제도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
- ③ 만물이 다양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형상이 없는 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④ 군주의 무위 실천은 백성이 인위적 규범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 ⑤ 백성이 자화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군주가 유위의 동기로 사회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4. (나)에 나타난 광상의 사상에 따를 때, ‘독화’와 ‘상대’의 관계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물은 각자 독화하므로 타자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립한다.
- ② 독화하는 만물들이 서로에게 존재의 조건이 되는 관계는 인위적 기획을 요구한다.
- ③ 만물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대의 그물망은 존재의 자율성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주재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물이 상대를 이루는 것은 개별 존재의 자생을 저해한다.
- ⑤ 만물이 타고난 고유한 성분에 만족할 때에만 비로소 독화의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는 우주 전체에 걸쳐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하며, 이 실체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원인으로 하여 존재하는 ‘자기원인’이라고 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 세계의 개별 만물들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변용(變容)으로 나타나는 ‘양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실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또한 그는 자연에 신비로운 초월적 기획이나 주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이 인과적 필연성에 따라 연결되어 움직이는 기계론적 질서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① 스피노자가 개별 만물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양태로 파악한 것은, 개별 존재가 외부적 원인 없이 자생한다고 본 광상의 관점과 대비되었군.
- ② 스피노자가 초월적 주재자의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만물의 배후에 있는 근원을 부정한 광상의 관점과 부합하겠군.
- ③ 스피노자가 실체를 스스로를 원인으로 하여 존재하는 ‘자기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개별 만물 각각이 스스로 생겨난다고 본 광상의 ‘자생’과 독립성을 지니는 주체의 층위에서 대조되었군.
- ④ 스피노자의 기계론적 필연성은, 각자의 독화가 인위적 기획 없이 신비롭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현합을 긍정하는 광상의 관점과 구별되었군.
- ⑤ 스피노자와 광상은 모두, 개별 존재의 생성을 거시적 인과 법칙의 결과로 파악하겠군.

6. 문맥상 ㉠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나무는 가을이 되자 가지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 ② 방 안의 습도가 높아지자 유리창에 조그만 이슬방울이 맺혔다.
- ③ 양국은 우호 증진을 위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 ④ 그는 어린 시절에 품었던 서운한 감정을 마음속에 맺어 두고 있었다.
- ⑤ 이 대화는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서둘러 끝을 맺었다.